

서울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4無 안심금융' 3000억원 긴급 추가 용자

임춘호 기자 | 승인 2021.11.01 08:59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용자 시행 ...11.1(월)부터 접수
한도심사 후 업체당 최대 1억원 용자, 한도심사 없이 업체당 2천만원 이내 가능
종전과 같이 1년간 무이자, 2년차부터는 0.8% 금리 보전 등으로 금융부담 완화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무이자 용자로 지원하는 '4無 안심금융'을 3000억 규모로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1일(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4無 안심금융'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를 골자로 한 획기적인 긴급용자지원으로, 오세훈 시장의 보궐선거 당시 공약사항이다.

지난 6월 2조원을 투입한 결과 현장의 관심과 요구가 절실하다고 보고 가용 가능한 예산을 총 동원, 3000억원 규모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 위기 환경 속에 영업의 정상화를 위해 6월부터 2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 결과 1조 9569억원(98%)의 용자가 지원되는 등 소진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는 담보력 부족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의 효과성을 확인한 결과다.

11월에 용자 공급을 재개하는 '4無 안심금융'은 지난 6월 이후 공급과 동일한 요건으로 지원한다.

먼저, 한도 심사를 받은 경우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신용평점 595점 이상, 舊 7등급 이상), 한도 심사없이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용자가 가능하며, 총 용자기간은 5년이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용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한도 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4무 안심금융'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대상 중 저신용자(신용평점 744점 이하, 舊 6등급 이하)의 경우 심사기준을 완화해 금융소외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원조건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무이자율, 2차년도 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하며, 대출금은 1년거치 4년균분 상환한다.

'4 無 안심금융'관련 지점방문 예약이나 무방문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나 고객센터(☎ 1577-6119)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 마련한 '4무 안심금융' 공급(3000억원)으로 지역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 이전 경제 회복 진입기 까지 경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춘호 기자